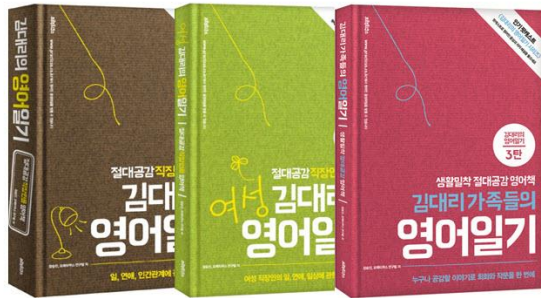


함께 쓰는 영어 일기 1

<광고>



# In Day-to-Day Use

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학습 효과 Up

팟캐스트로 들으면서 학습 효과 Up

오늘은 결혼식이 있었다.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3년의 연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인 것이다. 게다가 축가를 부탁 받아서 신랑 신부 못지않게 내가 더 긴장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. 결혼식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박하게 진행되었다. 마이크 테스트를 한 후 나는 한 곡의 자작곡과 한 곡의 가요를 불렀다.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결혼에서 축가까지 부르고 나니,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까 더욱 궁금해졌다. 나는 당장 대학교 졸업이라는 관문, 취직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, 내 친구는 25살에 3살 연상인 여인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꾸린다. 자취방에서 친구들과이랑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면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, 평생 남으로 살아왔던 상대와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. 나에게서는 내 친구의 삶이 진짜 어른의 삶인 것만 같다. 아직 취업도 안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많았다. 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.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에 어울리는 나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 주듯이.

I attended my close friends' wedding today. The two friends from church married each other after three years in a relationship. I was asked to be a wedding singer, so I must've felt more nervous than the bride and groom. It was a simple wedding held in a small restaurant. After checking the microphone, I sang two songs – one I had made on my own and, the other, a popular song. After singing at the wedding, I became curious about my own – when, where, and with whom would it be? I always thought I'd have to graduate from college and get a job first, then marriage would be next. But my friend decided to start his own family at the age of 25, with a bride only three years older than he. He chose to live a life where he wakes up in the morning together with a woman who was a perfect stranger before he had met her, whereas I still spend the night with friends, playing video games. To me, my friend's life looked like that of an adult. There was a lot of talk around me about the groom because he's getting married without a job. I hope the bride and groom live a happy life, if for nothing else, to prove to those badmouthers that age should never be a prerequisite for a successful marriage.

오늘은 결혼식이 있었다.

I attended my close friends' wedding today.

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3년의 연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인 것이다.

The two friends from church married each other after three years in a relationship.

게다가 축가를 부탁 받아서 신랑 신부 못지않게 내가 더 긴장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.

I was asked to be a wedding singer, so I must've felt more nervous than the bride and groom.

결혼식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박하게 진행되었다.

It was a simple wedding held in a small restaurant.

마이크 테스트를 한 후 나는 한 곡의 자작곡과 한 곡의 가요를 불렀다.

After checking the microphone, I sang two songs – one I had made on my own and, the other, a popular song.

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결혼에서 축하까지 부르고 나니,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까 더욱 궁금해졌다.

After singing at the wedding, I became curious about my own – when, where, and with whom would it be?

나는 당장 대학교 졸업이라는 관문, 취직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, 내 친구는 25살에 3살 연상인 여인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꾸린다.

I always thought I'd have to graduate from college and get a job first, then marriage would be next. But my friend decided to start his own family at the age of 25, with a bride only three years older than he.

자취방에서 친구들이랑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면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, 평생 남으로 살아왔던 상대와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.

He chose to live a life where he wakes up in the morning together with a woman who was a perfect stranger before he had met her, whereas I still spend the night with friends, playing video games.

나에게는 내 친구의 삶이 진짜 어른의 삶인 것만 같다.

To me, my friend's life looked like that of an adult.

아직 취업도 안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많았다.

There was a lot of talk around me about the groom because he's getting married without a job.

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.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에 어울리는 나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.

I hope the bride and groom live a happy life, if for nothing else, to prove to those badmouthers that age should never be a prerequisite for a successful marriage.